

# 고창오거리당산제의 복원 과정과 민속학적 가치

권은영(전북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오거리당산과 당산제의 민속학적 가치 |
| 2. 오거리당산제의 복원 배경과 과정 | 4. 맺음말                 |

## 1. 머리말

마을굿은 하나의 마을 혹은 여러 마을이 단위가 되어, 그 집단과 구성원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벌이는, 제의를 중핵으로 하고 여기에 일과 놀이가 결합된 집단적 행위이다. 마을굿은 마을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삼고 있지만 특히 마을 신앙 대상의 신체(神體)가 위치해 있는 곳이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당산제는 전라도 평야지역에서 두루 나타나는 마을굿의 한 형태로서, 고창 오거리당산제도 김제·부안·정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당산제의 일반적인 형태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오거리당산제의 범위는 상거리(동부, 천북동), 중거리(남부, 중앙동), 하거리(서부, 신흥동), 교촌동(북부), 중앙동(중앙)의 여러

마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마을들에서는 매년 음력 정초에 각 마을별로 개별적인 마을굿을 지낸 후, 정월 보름에는 이 마을들의 주민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줄다리기·연등놀이와 같은 놀이를 놀았다. 말하자면, 오거리당산제는 각 마을별로 지내는 개별 마을굿과 여러 마을이 결속하여 행하는 연합굿이 결합된 형태였다.

근대에 와서 오거리당산제는 전승이 끊긴 적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고창읍에서는 개별 마을굿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을 뿐 오거리당산제라 명할 수 있는 마을 간의 연합굿은 중단되었었다. 즉, 무형문화적인 의례가 제대로 실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큰 바위로 된 자연석 형태나 돌을 깎아 만든 석간(石竿) 형태의 당산 신체(神體)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고창의 중요한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존속되어왔다. 그러다 오거리당산의 민속자료적인 가치가 주목되어 1968년에 이에 대한 논문이 학계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1969년 12월 6일에 오거리당산의 여러 당산 신체들 중에서 중거리, 중앙, 하거리의 석간 형태의 당산이 중요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오거리당산이 민속자료로 지정된 후에도 당산제는 바로 복원되지 못했고, 1981년 <고창오거리당산보존회>가 결성된 후에야 오거리당산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오거리당산제는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에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7호 고창오거리당산제 보유단체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오거리당산제는 일제강점기 이후 침체기를 맞아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이 되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속학을 세운 초창기 민속학자들은 전통을 산업화, 합리화되는 문명 발전에 의해 파괴되고 손상되는 것으로 보고, 전통 보존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전통을 개념화했다. 이들은 이른바 민중 계층에 의해 전수·계승되는 것을 전통으로 정의하면서, 이것을 전통의 ‘기준’으로 삼았다.<sup>1)</sup> 그리고 ‘전통적인 것’에 대해 문화적 정체성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서의 연속성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에서 식민통치, 한국전쟁 등의 강력한 외부 사건들은

---

1) 백현미, 『한국근현대연극사의 전통 담론 연구를 위한 도론』, 『한국극예술연구』 1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0, 155면.

전통의 보존을 위협하였고 전통이 단절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오거리당산제 또한 일제식민통치 시기에 단절을 경험하였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sup>2)</sup>에야 다시 복원되었다. 유형문화의 경우 ‘원형’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형에 대한 정보만 충분하다면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복원해낼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유산이다. 임동권은 “형태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태 자체보다도 오히려 형태를 이루게 한 정신면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형문화재를 정의했다.<sup>3)</sup> 또한 무형문화재가 한 때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로 알려졌던 것처럼 이 무형의 정신적 유산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가시적인 형태로 구현되어야만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유자를 둘러싸고 있는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무형유산은 변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전승이 단절된 적이 없는 무형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구현될 때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형문화의 경우 ‘원형’의 개념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전승이 끊긴 무형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원형’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무형유산의 원형을 설정하는 일 자체가 무형유산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 일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무형유산의 본래 형태를 찾겠다고 하는 ‘복원’ 활동에는 복원 시점의 상황적 맥락에 따른 변형 작업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오거리당산제 또한 수십 년 동안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복원되었으며 그 복원 과정에서 전승 주체 면에서나 연행 상황 면에서 변화를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거리당산제의 복원 배경과 복원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이 무형유산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떻게 해석되고 가치 평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복원된 오거리당산제가 갖는 민속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에서 제작한 『고창오거리당산제』 팸플릿에 의하면 “1910~1945년 일제식민통치로 정월대보름 『오거리당산제』 중지됨”이라 적혀 있고 1981년 오거리당산 보존회가 결성되어 정월대보름에 오거리당산제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자면 오거리당산제는 약 70년간 전승이 중단되었던 것이 된다.

3) 임동권, 『무형문화재의 개념』, 『문화재』 창간호, 문화재관리국, 1965, 74면,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187면 재인용.)

## 2. 오거리당산제의 복원 배경과 과정

### 2.1. 오거리당산에 대한 민속학계의 주목

오거리당산제의 복원 배경에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유형문화재인 오거리당산에 대한 민속학계의 관심이었다. 오거리당산은 1968년 이두현<sup>4)</sup>에 의해 『한국문화인류학』 1집에 학술논문으로 발표되면서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 글은 상거리, 중거리, 하거리, 교촌리, 중앙의 오방위에 자리하고 있는 당산들을 소개하고 당산제의 제의 내용에 대해 약술하였다. 특히 속칭 ‘삿갓비석’, ‘삿갓비’, ‘갓당산’이라고 불리는 중앙, 중거리, 하거리의 석간 형태의 ‘할아버지당산’을 중요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제보자들의 구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석간이 풍수지리적으로 허술한 곳을 방비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임을 밝혔다.

오거리당산이 학계에 소개된 1960년대는 민속학 연구 인구가 증가하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확대되면서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던 시기이다. 그 가운데서도 국문학자들은 민요와 설화의 연관으로 자연히 민속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 민속학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1958년에 서울대에서 백령도 도서지방의 민속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으로 1960년대는 각 대학에서 현지조사가 활발해진 시기이기도 하였다.<sup>5)</sup>

민속학 연구가 팽창하게 된 학계의 이런 흐름은 1960년대 정부의 문화재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을 장철수<sup>6)</sup>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개최를 통해 각 지방에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오던 민속예술이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발굴되고 복원되기 시작했다.

둘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유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에 대한

4) 이두현, 「고창읍 오거리당산」, 『한국문화인류학』 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8.

5) 김용덕, 「민속학 보고서와 자료집의 간행」,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69면.

6) 장철수, 「광복후 50년 연구사」,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179-180면 참조.

현지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었다. 1960년 이후 이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전공학자들이 관여했다. 또한 문화재 지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화재관리국에 무형문화재과가,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예능민속연구실이 설치되었으며, 또 문화재를 조사하고 심사하기 위한 ‘문화재 위원회’와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관계 전공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셋째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한 전국민속종합조사는 민속학의 분야별·지역별 연구를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데 공헌했고 아울러 민속학의 연구대상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연구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이두현은 정부의 문화재정책에 개입되어 있는 민속학자로서 그에 의해 오거리당산에 대한 학술논문이 『한국문화인류학』 1집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인류학회는 1958년 창립되었는데, 1968년에 회지 『한국문화인류학』을 창간하면서 학회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sup>7)</sup> 이 학회의 회원들은 “해방 직후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민속을 규정하고 그 텍스트를 수집·채록했던 선학들의 연구 경향을 계승하면서 민속 문화의 역사성과 원형성을 규명하는 데 그 학문적 목적을 두었다.”<sup>8)</sup> 이 학회의 민속학자들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두현은 이 학회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다. 이 학회지의 창간호에 이두현이 오거리당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오거리당산의 민속학적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논문이 발표된 그 이듬해인 1969년에 오거리당산 중 화강암 석간형의 세 ‘할아버지당’이 중요민속자료 제 14호로 지정되었다.

## 2.2. 오거리당산제 복원 주체와 복원 과정

1969년에 오거리당산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이후에도 당산제는 바로 복원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여 민속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재관리국을 창설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민속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런 정책 하에서 오거리당산은 그에 대한 민속조사가 이뤄지고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될 수 있었다.

7) 인권환, 『한국민속학사』(중판), 열화당, 1980, 84면.

8)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186면.

그러나 1960년대 후기에서 1970년대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 이때에는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와 서구 지향의 어설플 과학주의, 이에 편승한 외래종교의 미신타과라는 맹신주의가 합세”<sup>9)</sup>하여 민속 의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이때에 마을굿과 같은 많은 민속 의례들의 전승이 약화되거나 단절되면서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민속 문화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마을굿조차도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미 전승이 단절된 오거리당산제를 복원시키자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당산제 복원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지 못했을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이두현의 논문에서도 당산제에 대한 내용은 간소하게 기술되었을 뿐이다. 그 내용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거리당산의 제일(祭日)은 마주보고 있는 상거리와 하거리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자정에 지냈으며 중거리는 정월보름날 교촌리와 중앙당산은 정월삼일 자정이다. 제관은 화주라고 부르며 15일전에 마을회의에서 공사간(公私間)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을 선출하며 화주와 집사를 합쳐 보통 세 사람이 선출되며 제일까지 근신하고 제일에는 목욕재계 한다.

우물에 금줄치고 제일 지날 때까지 일반의 사용을 금한다. 제물은 소머리, 떡, 메, 삼색과일, 나물, 어물(상거리에서는 비린 것은 쓰지 않는다), 제주(祭酒)(화주가 담근다) 등이며 제기(祭器)는 해마다 새로 장만하고 제후(祭後)에 제물과 함께 화주가 갖게 되며 음복할 때 깨끗지 못한 사람들은 먹으면 탈이 난다고 스스로 음복하기를 사양한다. 제일을 맞아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제일을 연기하는데 이때에는 부정한 일이 있는 집에서 제수(祭需) 일체를 새로 장만해야 한다. 제의 절차는 헌배(獻盃)하고 축문 읽고 소지(燒紙) 올리는데 먼저 <할아버지 당>을 모시고 다음에 <할머니 당>과 <아들당>을 모신다. 당산제에는 남자들만이 참석하며 중거리와 하거리에는 제일(祭日) 초저녁부터 굿을 쳤고(농악) 보통 정초부터 15일간 ‘결궁’하여 거출된 전곡(錢穀)을 부락기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하거리에서는 그밖에 대지임대로 뭍으로 리(里)에서 제비(祭費) 보조(補助)가 있었다. 약 50여 년 전까지 성하던 색전(索戰)은 동부와 서부를 암줄과 솥줄로 나누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솥줄쪽에서 저주는 것이

9) 김용덕, 앞의 논문, 70면.

보통이라고 한다. 행사후에는 줄을 상거리와 하거리 당산목에 각각 감아두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와 같은 당산제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사들이 해방과 더불어(하거리), 또는 육이오사변 후(중거리) 각각 없어지고 개인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약식제물(略式祭物)로 정성을 드릴뿐이며 중거리와 하거리는 아직 그곳 이장과 반장이 화주가 되어 해마다 약식제의(略式祭儀)를 올리고 있다.<sup>10)</sup>

이 글에 따르면 오거리당산제는 상거리와 하거리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 자정에, 음력 정월 삼일에는 교촌과 중앙 당산에서, 그리고 중거리에서는 정월보름에 당산제를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당산의 당산제가 어떻게 연합된 형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마을회의를 통한 제관의 선출방법, 제관과 마을 주민이 지켜야할 금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헌배, 축문, 소지로 제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중거리와 하거리 당산제에서 풍물굿을 치고 정초부터 15일간 걸궁을 통해 부락기금을 걷는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또 50여 년 전인 1910년대에 색전, 즉 줄다리기가 벌어졌는데, 암줄과 수줄로 줄이 나뉘는 쌍줄다리기가며 동부와 서부로 편을 나누어 하였으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수줄에서 쳐주었던 점을 기록하였다. 이 줄다리가 끝나면 줄을 상거리와 하거리 당산목에 감아두었다고도 하였다.

이 글이 작성될 때쯤인 1968년에는 “당산제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사들이 해방과 더불어 또는 육이오사변 후 각각 없어지고 개인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약식 제물로 정성을 드릴 뿐이며 중거리와 하거리는 아직 그곳 이장과 반장이 화주가 되어 해마다 약식제의를 올리고 있다.”고 하여 당산제가 간소한 유교식 제사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두현이 고창읍 읍내리에 사는 다섯 명의 제보자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었다.

이두현의 논문 발표와 그 이듬해 오거리당산의 중요민속자료 지정은 고창 사람들로 하여금 오거리당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지역문화에 애정을 가진 고창의 토착 지식인들과 유지

---

10) 이두현, 앞의 논문, 64면.

들은 고로들의 증언을 모으고 자신들의 기억을 되살려 오거리당산제의 제의 절차를 재구하고 절차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81년 결성된 <오거리당산제 보존회>이고 이들이 정월대보름에 오거리당산제를 마을들이 연합한 당산제 형태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설태종 현 오거리당산 보존회장이 “당산제 복원에서 가장 공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기화 전 문화원장은 <오거리당산제 보존회>의 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문화원에서 하면서 오성탁 교장이 고창군 변영회장이요, 그서 내가 회장으로 웅립만 했죠, 그분이 지낸 것은 아니죠, 문화원에서 다 했는데, 제가 재현한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오성탁 씨는 인자 회장으로 우리가 웅립을 했죠, (조사자 : 변영회라고 하면 변영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예요?)

고창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을 슌다고 하는 의미에서 변영회를 구성을 했지요, 교장의 변영을 위한 모임이니까 변영회죠, 그서 변영회장이니가 당신이 오거리당산 보존회장을 맡아주시오 해서 웅립을 했죠.

(중략)

고창도 각 고을 당산을 다 지내야거든요, 지금, 각 동네 당산을, 동제를 지내야는데 동제를 지낼 인력이 없어요, 인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인자 80년도에 오거리당산제를 문화원에서 다시 인자 복원해서 인자 제전을 올렸죠, 그러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라고저러고 했다는 것을, 고로들한테 듣고 또 저희들도 어려서부터 일제 때부터 또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자 옛날에는 이렇게 허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런 요령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인자 우리 식으로 지냈지요, 인자.<sup>11)</sup>

<오거리당산 보존회>의 초대 회장은 오성탁으로 그는 고창여자중고등학교의 교장이면서 고창변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위의 구술 자료에 따르면 오성탁 교장은 보존회의 회장으로서 단체를 대표하고는 있었으나 당산제의 준비와 제의과정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 같으며, 당산제에 관한 실무는 주로 문화원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거리당산제는 여러 마을이 연합

11) 이기화 구술자료, 2011년 11월 5일, 이기화 자택에서 면담.

하여 치르는 마을굿이기 때문에 소수의 주동적인 인물들로만 성사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보존회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것을 만들어서 당산제를 보름날 인자 민속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sup>12)</sup>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성탁 교장이나 이기화 문화원장과 같은 이들의 주도적인 활동과 더불어 각 마을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오거리당산제의 실연을 가능하게 하였다.

1회 오거리당산제를 치러내고 나자 당산제의 복원 주체들은 수십 년 동안 미미하게 있어왔던 이 행사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후세들에게 전승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오거리당산제는 정초에 행해지는 마을 굿으로서 연례적인 의례이다. 기껏해야 일 년에 한번 시행되는 행사만으로는 후대로의 전승이 어렵다고 판단한 오성탁 교장은 오거리당산제를 고창여자중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끌어들었다.

교장선생님이 내가 고창사람이고 뭐 험게 이리 와라. 1회 때 하고 나서, 오거리당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런 내용에서 또 이렇게 연출을 해야 한다. 과정이 이렇다. 학교에서 지역전통문화창달을 해야 한다. 근게 그분이 굉장히 뜻이 깊은 분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앞서가는 분이었지. 근게 지역의 문화를 창달시켜가야 한다. 그러니 학교에서 요것을 오거리당산을 해라. 해서 내가 그때 연출을 하기 시작했지.

(중략)

근게 나는 헌지가 30년 이상을 접했지. 그때 인제 그 양반이 초대 회장이었고, 누구도 오거리당산을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양반 집도 바로 그 옆이었으니까 옛날에 그때는 요거였고, 색깔은 요것이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연등놀이하고 제는 어떻게 하고<sup>13)</sup>

고창읍이 고향이자 거주지였던 오성탁 교장은 자신이 어렸을 때 보았던 당산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산제가 지역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에서 당산제를 교육하고 연행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를 창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창읍 출신인 교사 설태중에게 오거리당산제의

12) 설태중 구술자료, 2011년 10월 28일, 정읍배영중학교 교장실에서 면담

13) 설태중 구술자료, 2011년 10월 28일, 정읍배영중학교 교장실에서 면담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오거리당산제의 교육 프로그램화를 제안하였다. 중거리 당산 부근에서 성장하고 거주하였던 설태종 또한 약식으로나마 치러지던 당산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산제의 교육과 복원에 대한 의미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오 교장의 제안을 수용하여 오거리당산제의 복원과 교육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맡게 되었다.

학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오거리당산제를 가르치고 공연하자고 제안하고 지시했던 오성탁 교장은 오거리당산제의 목적과 의의, 전체 진행 과정, 소품 만드는 법, 놀이 하는 방법 등의 당산제에 대한 정보를 설태종에게 제공하였다. 오성탁 교장은 이 시기에 고창문화원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오거리당산제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은 확보하는데 문화원에서의 활동과 이기화 문화원장과의 교류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에서 당산제를 교육하고 학생들이 당산제를 공연하도록 하는 데에 학술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의 지원이 있었을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마을이라는 집단과는 체계와 성격이 전혀 다른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오거리당산제가 교육되고 연행되자 오거리 당산제는 마을곳의 맥락과는 별개로 하는 이벤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때 해갓고 학교 체육대회마다, 봄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행사를 크게 했어요. 옛날에는 시골이니까 축제도 열매 없고 뭇 허면은 학교 행사에 학부모들이 다 모여요. 근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모양성내에 있어,  
(조사자 : 여중, 여고요?)

예. 옛날에는. 그르믄은 5월 8일 날 되면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전체가 모이믄, 읍민이 거의 다 와요. 엄청 나. 내가 그 사진 자료가 다 있지요. 그때 그것을 발표를 해. 근게 애들을 데리고 한 학년 300명을 데리고 내가 움직이쥬, 고놈을 연출을 해가지고 발표를 허고, 또 그때 kbs에서도 또 나중에 지역 문화에 대해서 찍는다고 해서 두 번 또 촬영해가고 또 가을 체육대회 때에 발표허고, 그서 아주 그냥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알려지고 우리 학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이튼 알려져 있었어요. 그때.14)

14) 설태종 구술자료, 2011년 10월 28일, 정읍배영중학교 교장실에서 면담

오거리당산제는 어버이날 행사나 가을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에서 일종의 공연물로서 연행되었다. 고창여자중고등학교는 모양성 내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서, 학교에서 치르는 어버이날과 체육대회는 당시에 다수의 고창읍민이 참여하는 지역 내의 비중 있는 행사였다. 이런 행사에서 설테종은 약 300명의 학생을 데리고 오거리당산제를 연출하여 발표하였다. 오거리당산제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여학생들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자분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 내용을 전주 KBS 방송국에서 촬영해갔으며, 고창여자중고등학교 『개교 40년사』 책에 사진으로도 남아있다고 한다.

오거리당산제가 마을굿과는 다른 맥락에서 연행되자, 고창이란 지역을 벗어나 외부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되기도 했다. 설테종이 기획·지도한 오거리당산제는 1981년과 82년 전북도민의 날의 고창군 입장 분야에 참가하여 두 차례 1위를 수상하였다.<sup>15)</sup> 각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이 행사는 전주 풍남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진행되었는데 고창 지역에서는 고창여중고생들이 오거리당산제를 가지고 가장행렬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오거리당산제는 학교에서 교육되고 행사에 동원됨으로써 점차 공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마을굿은 제의가 중핵이 되는 집단적인 실천행위로서, 모든 마을굿은 일차적으로 신앙의 대상에게 바쳐지는 것이다. 때문에 마을굿에서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관객은 마을의 수호신이 된다.<sup>16)</sup> 그런데 근대화 이후 마을굿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나 관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더 이상 마을굿을 통해 종교적 효험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보다는 마을굿을 이어져온 전통을 재확인하고 지속시키려는 행위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의 변화로 인해 마을굿은 가장행렬의 한 테마가 될 수가 있었고 민속예술축제(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경연대회의 참가작품이 될 수 있었다.

마을굿이 신앙의 하나로서 수행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을굿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을굿이 하나의 공연작품처럼 만들어졌을 때에 마을굿의 목적은 그것을 본 관객들과 평가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작품으로서 평가되느냐 하

15) 「고창군민의장 수상자 선정」, 『고창신문』, 2001. 10. 05. <http://gcnb.tv/default/index.php>

16) 김윌덕, 『한국 마을굿 연구』, 지식산업사, 2006, 71면 참조.

는 것이 된다. 오거리당산제에 대한 가치를 논의할 때 외부 관객과 평가자들  
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 심사할 때 안동대학 민속학 교수가 심사위원장인데 원형에 가장 가깝다  
고, 오늘 출전한 각 팀의 사례로 봐서 고창오거리당산제가 가장 원형보존이  
잘 되어 있고 단합도 잘 되어 있고, 그러서 우리는 또, 다른 디는 그때 우리가  
출전해서 보니까 모다 그냥 영기니 농기니 뭐 만들어서 막 화려하게 만들었잖  
요, 우리는 전부 옛날식으로다가 써가지고 갔어. 써서 했어요, 근게 하나도 인쇄  
된 것이나 그런 거 없어요, 저 깃발 보세요, 전부 다 써졌지요, 써서 했죠, 옛날부  
터 허던 그대로 우리는 진행을 했죠.<sup>17)</sup>

서울에 가서 국가무형문화재들하고 거기서 시연하는데 우리가 제일이다, 수도  
많고 극이 재밌으니까. 우리 한국적인 토속적인 이런 게 있고, 또 해설이 다  
있어. 우리는 고창이 판소리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놀이든지 놀이요가 있어요,  
전부다. 춤, 고창농악 이런 것이 다 섞여지니까 관객들도 동화가 빠르고 또  
우리 극이 흡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관객을. 그냥 거그들도 덩실덩실 추면 되니  
까. 또 그리고, 아주 좋은 평 받고 있어요.<sup>18)</sup>

이 구술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거리당산제는 복원되는 과정에서 그  
마을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집단 자족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  
로 보인다. 그보다는 학계의 인사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이  
를 통해 지역문화에 자긍심을 얻고자 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 관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이  
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복원 주체 간의 해석 차이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던 오거리당산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복원 주체들  
은 과거의 형태와 의미를 고스란히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당산제를

17) 이기화 구술자료, 2011년 11월 5일, 이기화 자택에서 면담.

18) 설태종 구술자료, 2011년 10월 28일, 정읍배영중학교 교장실에서 면담

복원하기 위해 고로들의 증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의 제의 절차들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복원 주체들은 변화된 연행상황에 맞게 당산제의 형식을 다듬어 지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오거리당산제가 현대적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하였다.

나는 오거리당산제보존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회장하고 사무국장뿐이 없어. 그거 마을이장들 다 동원하고 뭇 허고 해서 옛날 그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던 모든 것을 다 연출했죠. 그것을 원형 찾아가면서 뭐 하면서. 원형에 의해서 하면서. 또 어렸을 때 볼 때 동네에서 재미있게 뭇이 연출되고 뭇 했던 거. 각시 신랑 이렇게 했던 것도 생각해가면서 연출해가지고 메칠 한 이삼일 연습뿐이 안 했어. 그래갖고 전라북도에 가서 일등하고 시월달에 전국대회에 가서 연습을 많이 했지. 해갖고 가서 그때 대통령상을 따고.

(중략)

전임들이 뭇 했냐면 깃발이 다우다, 천 근게 동네에서 싸고 돈 안 들이게, 돈이 없으니까 허기 위해서 다우다로 검정색, 빨강색, 이렇게 해갖고 거그다가 페인트로 글씨를 (조사자 : 아, 처음에 할 때는요?)어, 글씨를 써갖고 이분들이 했더라고. 그분 옛날에는 그런 다우다도 라고 또 글을 쓴다든 다 묵필로 쓰지 페인트 흰색으로 쓰고 허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이젠 싹 없애버리고 이왕에 만들 때 우리가 오방색깔이니까, 또 요것도 색깔도 부드럽게 미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눈에 조화롭게, 우리는 다 민속옷이 흰옷 아닙니까. 흰옷과 너무나 미술검정이라도 진해버리는 것보다도 조화로운 어떤 것을 만들자. (조사자 : 자연스럽게요?) 아, 그게 창달이지. 내가 없던 것을 만들고 뭇 한다면 꾸민 것이지만 시대에 맞게, 뭇 옛날에 꼭 무명옷, 그것이 전통적인 것이다든 모르지만은 깃발이나 이런 것은 시대에 따르선 디자인도 조금씩 변해야 하니까, 좀 외국사람들이나 누구나 볼 때 좀 아름답다 하는 쪽으로 깃발을 넣죠. 그것은 좀 연출을 시켰죠.<sup>19)</sup>

당산제의 본래 형태를 찾으려는 노력과 현재의 연행맥락에 맞게 연출하려는 노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복원 주체들의 실천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

19) 설태중 구술자료, 2011년 10월 28일, 정음배영중학교 교장실에서 면담

게 되었다.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대통령상과 지도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에는 보존회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7호 고창오거리당산제 보유단체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과거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관점과 현재의 맥락에 놓여있는 연행물로서 극적인 효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관점 간의 충돌은 오거리당산제의 연합극 장소가 중거리 당산인지 중앙당산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났다.

당산제의 고증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연합극의 장소로서 중거리당산이 맞는 장소임을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당산은 풍수지리적으로 허한 곳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세운 것인데 오거리 중에서 허한 곳이 남쪽인 중거리와 서쪽인 하거리이다. 하거리는 지대가 낮아 물이 많이 차는 곳이어서 이곳에 숲을 조성하여 허한 곳을 보완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창읍의 남쪽 좌청룡이 허하고 또한 왜구의 침략이 잦아서 가장 경계해야 할 방위가 남쪽이기 때문에<sup>20</sup> 다른 당산제를 모두 마친 정월대보름날 밤에 오거리의 모든 주민들이 중거리당산에 모여 당산제를 지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원된 오거리당산제도 중거리당산에서 연합극을 치고 줄다리기를 한 줄을 중거리당산에 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거리는 신분 사회인 조선시대에 향반들이 거주하던 상거리와 신분이 낮은 하층민이 거주하던 하거리의 중간 지대로서, 향반들과 하층민이 만나는 접점지대라는 사회적인 특징을 지닌 곳이다. 따라서 오거리의 주민들이 모두 어우러져 연합극이 진행되어야 하는 곳으로 중거리당산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앙당산(중리당산)은 ‘아전당산’이라 하여 동헌의 아전들만 별도로 모시던 당산이기 때문에 중앙당산에서 연합극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20) 이병열, 「고창읍의 비보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7집,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11, 354-355면.

21) “중거리가 중심이 되죠, 중거리가. 여 중리 당산은 갖사리여, 갖사리. 가운데에 가 있지만은 그것은 인자 아전들만이 인자 느그들끼리 인자 당산제를 모셔라 하는 의미로 따로 따어 주었어. 그니까 거그서, 진행을 거그서 주도하면 안 되지. 거그다 줄 감으면 안돼. 있을 수 없는 일여, 그것은. 아전은 아전들, 느그들끼리만 지내라. 그리고 인자 오거리당산제를 지내는 보름, 대보름제를 지낼 때에는 참여는 해라. 그렇게 돼 있지만은 거그다 줄을 감는 것은 무식한 짓이지. 있을 수 없는 일여.”(이기화 구술자료, 2011년 11월 5일, 이기화 자택에서 면담)

반면에 중앙당산에서 연합국이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리(중앙)당산은 당산이 만들어질 때 구읍(舊邑)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으며 고창의 오방 중 가운데에 자리한 곳으로 오방사상의 개념에서는 중리가 중심<sup>22)</sup>이 된다. 또한 세 개의 석간형 당산들 중 중거리와 하거리의 당산 샷갸이 사각형인 반면 중앙당산은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 조형 면에서 독특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방사상에 의해 중심이 되는 중앙당산에서 오거리당산제의 연합국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전부다 거리당산제를 초하루부터 초사흘날까지 지내고 보름날 중앙에 모여서, 중앙에 모여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여서 고을당산제를 지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산 위치로 보면은 지금 현재, 옛날에는 지금 새끼로 감아는, 줄로 감아는 데가 옛날말로 복촌 당산이라고 하고, 중앙 당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여그가 길이 이렇게 있어갔고, 여그는 막 장터가 되야부러갔고 요리 장으로 막 시장이 되야부러었어요. 옛날에는 여그가 당숯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디 그 뒤에 막 집 짓기 시작해갔고 여그가 장터가 되야부러어. 매일 시장이. 여그서는 움직일 디도 없고 이 당산이 제일 가공되고 제일 예뻐요. 또 훌륭해, 모든 것은 거칠고 뭇 허고 허지만은,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술적으로. 허고 중앙에 위치허고. 그 글로 봐서 제일 가공도 예쁘게 허고 이 중심이다 이 소리지요. 근데 여기서 해왔던 것을 이 당산이 완공된 해가 1801년인데 그때 여기서 시작된 것이 일제 때 못허게 해버리고 현재 여그를 그냥 오히려 사람들 들어서지도 못 허게 여그다 집을 더 많이 집을 짓게 해버렸을 거 아닙니까. (중략)1회라고 만들어진 게. 81년에 오성탁 교장이 하면서 행사할 데라고는 여그(중앙당산, 중리당산)는 들어가도 못해, 골목으로 되어 있어. 근게 여그가 큰 길이 나왔어. 여기도 중앙동이고 여기도 중앙동이에요. 가까워. 그서 여그서 (중거리당산) 행사를 헛 거여.

조사자 : 그거는 무슨 당산이라고 불러요?

지금 거, 중거리당산이라고. 거가 중거리 당산에서, 같은 중앙동이에요. 근데 위치는 여기(중앙당산)가 가운데거든요. 핵심이지, 그서 여그서(중거리당산) 보존회 행사가 해왔쥬. 근데 내가 막 이견 치워야 한다, 여그다. 해갔고 여그를 다 치웠어. 새로 생긴, 오교장은 여그서부터 했쥬, 그때. 23)

22) 이병열, 앞의 논문, 359면.

23) 설태중 구술자료, 2011년 10월 28일, 정읍배영중학교 교장실에서 면담.

위에 따르면 당산이 세워진 이후로 중앙당산에서 연합굿을 하였는데, 일제는 당산제를 못하게 하려고 중앙당산 주변에 집을 짓고 상가를 형성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1981년 보존회가 오거리당산제를 재개하려 할 때에도 중앙당산 주변에는 건물이 들어차 있었다. 그래서 보존회에서는 중앙당산 대신에 같은 중앙동에 위치해 있던 중거리당산에서 연합굿을 했고 이 이래로 연합굿을 꼭 중거리당산에서 치렀다고 하였다. 그러다 설태종이 군에 요청하여 중앙당산 주변의 빈집들을 철거하고 정리한 후 2011년에는 중앙당산에서 연합굿을 하고 중앙당산에 줄을 감았다.

또한 현재 중거리당산은 차로 변에서 있고, 그 당산의 뒤쪽으로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워 보였다. 반면에 중앙당산은 낮은 시장 건물이 철거되어 넓은 공터를 이루고 있어서 당산제를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연합굿의 장소를 두고 엇갈리는 이런 해석의 차이에서 누구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오거리당산제의 연합굿은 명맥이 끊어진 상태였고, 논쟁을 하는 이들 이외에 당산제에 관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이들도 없고 기록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해석 차이의 기저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복원 주체들의 욕망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들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실천들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거리당산제가 지속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3. 오거리당산과 당산제의 민속학적 가치

#### 3.1. 전통적인 상징 자원의 원천

고창은 고을 풍수가 행주형국(行舟形局)으로, 파도 위에 있는 출렁이는 배의 모습을 하고 있어 고을에 환란이 생기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을의 허(虛)를 메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입석신체(立石身體)를 세워 당산신으로 삼았다. 그러다 1790년대 조선 후기에 큰 물난리를 겪고 난후 전염

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자 이를 빨리 수습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이에 고창 고을의 아전들이 민습을 수습하기 위해 물난리에 떠내려간 자연석 당산 대신에 1803년 중거리, 중앙, 하거리에 화강암 석간인 갓당산을 제작하여 세우고 이를 당산신으로 삼았다.<sup>24)</sup>

이처럼 오거리당산은 풍수지리사상을 보여주는 민속자료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두현의 논문에 도선과 관련된 설화가 소개된 바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갓당산의 기원에 대하여 박웅(박관형 웅)은 “지금으로부터 근 천년전의 영암사람 최도선이 천상 삼태성 정기를 타고난 사람으로 중국서 도술을 배워 도사가 되어 돌아와서 절이며 탐, 장승, 솟대, 서낭당 같은 것을 모두 허술한 데 수구막이 하느라고 조선팔도 각처에 써왔다.”는 것이다.<sup>25)</sup>

이 글에 따르면 천 년 전 사람 최도선이 중국에서 도술을 배워 돌아온 후 조선팔도의 각 처에 수구막이를 위한 장치들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두현에게 제보를 한 박관형 웅은 고창의 오거리당산이 최도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 설화 속의 최도선은 풍수지리학의 대가로 알려져 많은 설화에 등장하는 도선국사를 가리킨다.

풍수는 중국에서부터 한국, 대만, 오키나와 등에 전래되었고, 특히 한국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의 과목이기도 했다. 풍수지리는 지리학으로서 학문으로 여겨졌으며, 그 때문에 유교 지식인들에게 널리 수용되었다.<sup>26)</sup> 오거리당산은 그 위치 자체가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방위에 배치되어 있어 오방사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창의 풍수지리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상징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거리당산 중 중앙당산은 특히 미륵당산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륵은 석가모니불의 뒤를 이어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로 알려져 있다. 호남지방에는 익산 미륵사,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화순 운주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

24) 『고창군지』 하, 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31-32면 참조.

25) 이두현, 앞의 논문, 66면.

26) 김동욱 외, 『한국민속학』(개정판), 새문사, 1994, 282-283면 참조.

적인 미륵도량이 있다.<sup>27)</sup> 고창 선운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신라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 위덕왕 때의 검단이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중 진흥왕 창건설은 미륵불과 관련되어 있다.<sup>28)</sup>

오거리당산 자체뿐 아니라 당산제의 절차들에서도 이런 상징 자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산 주변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사람을 접근을 막기 위해 황토흙을 뿌리고 금줄을 치는 행위는 붉은 황토와 흰새끼가 벽사(辟邪)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월초하루부터 정월보름까지 풍물굿패가 하는 걸궁은 당산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지신밟기’라 하여 마을과 집안에 악기소리를 울려 잡귀를 몰아내는 주술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오거리당산제의 특징 중 하나인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그 주술-종교적 성격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논의한바 있다. 이 견해를 한양명이 요약했는데, 대체로 줄은 용사(龍蛇)의 상징물이며 용사는 수신(水神), 나아가서 농신(農神)에 다름 아니므로 줄다리기는 풍농기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게다가 암수의 결합을 모의하는 것은 모의적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다산을 유감하고자 하는 주술-종교적 사유의 발현이라는 것이라 하였다. <sup>29)</sup>

이와 같이 오거리당산은 그 자체로서 풍수사상, 미륵사상, 오방사상과 같은 가치체계를 상징하고 있다. 당산제의 내용 중에서도 황토, 금줄, 풍물굿이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줄다리기의 줄은 용을 상징하고 줄의 결합은 암수의 결합을 모의하여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오거리당산과 당산제는 민속의 다양한 상징자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 3.2. 전통적인 의례와 놀이 행위의 원천

오거리당산제는 당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례 행위와 더불어 연등놀이,

27) 송화섭, 『호남지방의 미륵제 연구』, 『한국문화와 역사민속』, 전주: 신아출판사, 2003, 507면.

28) “신라의 진흥왕이 왕위를 버린 첫날밤에 좌변굴(진홍굴이라고도 하는데, 도솔암 밑에 있다.)에서 자다가 꿈속에서 미륵삼존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중애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이 절을 다시 크게 일으켰으니 그것이 곧 선운사의 시초라는 것이다.” 『고창군지』 하, 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739면.

29) 한양명, 『줄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360면.

줄다리기 등의 놀이가 결합되어 있는 마을의 집단적 행위이다. 또한 음악, 무용, 연극이 한데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인 풍물굿이 당산제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거리, 중거리, 하거리, 중앙, 교촌의 각 마을에서 지내는 당산제는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소지(燒紙)를 하는 작은 규모의 제사 행위이다. 이 마을들이 연합하여 오거리당산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생기복덕한 사람을 제관으로 뽑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관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초상집에 가지 않고, 마을에서 출산하는 일이 없게 하는 등 굿은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금기의 시간을 갖는다. 제삿날이 되면 연합굿이 열리는 당산에 모여 재물을 차려놓고 유교식의 제사를 지낸다. 이런 제사 의식에는 제관 선출, 금기, 제의라고 하는 일련의 제사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놀이적인 면에서 보면 오거리당산제에는 풍물굿과 연등놀이, 줄다리기가 결합되어 있다. 풍물굿은 정월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걸궁을 하며 지신밟기를 하는데, 벽사의식적인 목적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신명을 높여 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풍물굿은 음악, 무용, 연극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어 그 자체로 민속예술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sup>30)</sup>

연등놀이는 달리 영등(迎燈)놀이라고 하는데 ‘등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이 영등놀이에서 등을 불사르는 연등제(燃燈祭)를 한다. 연등제를 지내려면 인력과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마을 단위의 당산제에서는 할 수가 없다.<sup>31)</sup> 연등놀이에는 연등을 제작하는 행위, 실제 연등놀이를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줄다리기는 줄을 제작하는 행위, 줄을 메고 이동하는 행위, 암줄과 수줄이 교합하는 줄 예맞이 행위, 줄을 당기는 행위, 당산에 줄을 감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행위들 중 줄을 제작하고 이동하는 행위는 일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노래와 풍물굿이 결합되면서 놀이적인 속성이 강화된다. 또한 ‘줄예맞이’는 줄다리기라는 놀이에 포함되어 있고 또 간소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혼례의식을 따라 치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적인 행위 속에 의례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0) 풍물굿이 음악적인 형태로 분화한 것이 없으면 사물놀이이며, 사물놀이는 다시 ‘난타’와 같은 타악 퍼포먼스의 원천 자원이 되었다.

31) 이기화 구술(2011년 11월 5일, 이기화 자택에서 면담).

이처럼 오거리당산제는 비록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의식이지만 그 절차 속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의례 행위와 놀이 행위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는 오거리당산제의 복원 배경과 과정, 그리고 오거리당산과 당산제의 민속학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오거리당산제는 1981년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가 당산제를 다시 할 때까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연합국이 중단된 채로 각 마을의 간소화된 당산제만 남아 그 맥을 지탱하고 있었다. 오거리당산제의 복원에 대한 단초는 유형문화유산인 오거리당산에 대한 학계의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오거리당산에 대한 논문이 1968년 『한국문화인류학』 창간호에 게재되었고, 그 학회지의 회원들은 당시 정부의 문화재 정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민속학자들이었다. 이후 오거리당산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고, 이 일은 오거리당산에 대한 고창 사람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거리당산과 당산제에 대한 관심으로 1981년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정월대보름의 당산제가 재개되었다. 한편으로 오거리당산제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후세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복원 작업과 공연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로써 오거리당산제는 마을굿의 맥락과는 다른 공연작품으로서의 성격과 양상을 갖게 되었다.

오거리당산제를 복원하는 주체들에게는 크게 두 개의 인식이 작용하였는데, 하나는 과거의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재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 맥락에 맞게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원 과정에서 이 두 인식이 조화를 이루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현재 연합굿의 장소에 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복원 주체 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오거리당산과 당산제는 전통적인 상징 자원을 함유하고 있고, 전통적인 의례와 행위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민속학적인 가치를 논할 수 있다. 오거리당산은 그 자체로 비보경관의 목적과 기능을 위해 세워졌다는 점에서 풍수사

상을, 다섯 방위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방사상을, 중앙당산이 미륵불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미륵사상을 담고 있는 상징 자원으로 작용한다. 당산제 과정에서 이런 상징 자원이 발견된다. 이를 테면 황토, 금줄, 지신밟기 등은 벽사와 관련되어 있고, 줄다리기의 줄은 용을, 암줄과 수줄의 결합은 성교를 모의하여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오거리당산제는 제의를 주요 축으로 하여 일과 놀이가 결합되는 행위의 집합으로, 전통적인 의례 행위와 놀이 행위가 풍부하다. 제관 선출·금기·유교식 제사에서는 일련의 제사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줄다리기의 ‘줄예맞이’에서는 비록 간소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혼례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놀이의 면에서는 풍물굿, 연등놀이, 줄다리기가 포함되어 풍부한 전통 놀이 행위를 보여 준다.

이처럼 오거리당산제는 복원 과정에서 과거의 형태와 의미를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현대적인 맥락에서 당산제를 안정적으로 위치시키려 하는 노력이 투여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거리당산과 당산제가 품고 있는 전통적인 상징 자원, 그리고 전통적인 의례 행위와 놀이 행위는 현대인들의 상상력과 만나 다양한 스토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롭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거리 당산제는 복원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복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형되었지만, 전통적인 상징 자원, 의례 행위, 놀이 행위를 여전히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 현대적 맥락에 맞는 새로움이 더해진 문화를 창출해 내는 데에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설태종 구술자료(2011년 10월 28일, 정읍배영중학교 교장실에서 면담)  
이기화 구술자료(2011년 11월 5일, 이기화 자택에서 면담)  
『고창오거리당산제』, 팸플릿, (사)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고창군지』 하, 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디지털고창문화대전 <http://gochang.grandculture.net/>  
김동욱 외, 『한국민속학』(개정판), 새문사, 1994.  
김용덕, 『민속학 보고서와 자료집의 간행』, 『한구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김월덕, 『한국 마을곳 연구』, 지식산업사, 2006.  
백현미, 『한국근현대연극사의 전통 담론 연구를 위한 토론』, 『한국극예술연구』 1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0.  
송화섭, 『호남지방의 미륵제 연구』, 『한국문화와 역사민속』, 전주: 신아출판사, 2003.  
이두현, 『고창읍 오거리당산』, 『한국문화인류학』 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8.  
이병열, 『고창읍의 비보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7집,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11.  
인권환, 『한국민속학사』(중판), 열화당, 1980.  
장철수, 『광복후 50년 연구사』,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한양명, 『줄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고창군민의장 수상자 선정』, 『고창신문』, 2001. 10. 05.  
<http://gcnb.tv/default/index.php>

## 【국문초록】

고창의 오거리당산제는 일제강점기에 전승이 끊겼다가 1981년부터 다시 재개·복원된 무형문화유산이다. 오거리당산제를 복원하는 주체들에게는 두 개의 인식이 혼재되어 작용하였는데, 하나는 오거리당산제를 과거의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재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 맥락에 맞게 다듬어서 지역문화의 이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거리당산제를 옛 모습 그대로 되살리고자 하는 고증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후세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현재의 맥락에 맞게 연행을 연출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었다. 복원 과정에서 이 두 인식이 조화를 이루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현재 연합곳의 장소를 두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복원 주체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오거리 당산제는 복원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복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형되었지만, 전통적인 상징 자원, 의례 행위, 놀이 행위를 여전히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 현대적 맥락에 맞는 새로움이 더해진 문화를 창출해 내는 데에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제어 : 오거리당산제, 오거리당산, 당산제, 마을굿, 고창, 무형문화유산, 복원

【Abstracts】

## Restoration Process of Gochang Ogeori Dongsanje (ritual) and its Folklore Value

Kweon, Eun-Yeong

The passing on of Ogeori Dongsanje of Gochang was discontinu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n the Ogeori Dongsanje was resumed and restored so that it could be passed on again from 1981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wo perceptions worked in conjunction on those who led the restoration of Ogeori Dongsanje. One was to keep intact the form and meaning of the earlier Ogeori Dongsanje, and the other was to utilize it for the benefit of local culture by adjusting it to the contemporary context. As a result, efforts to conduct historical research and to revive the old appearance of Ogeori Dongsanje progressed along with the production of a feast attuned to the contemporary context in order to promote it to local residents and for it to be passed on for posterity. For its designation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certain performance was produce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while these two perceptions were in harmony; however, as a difference in opinion appeared over the place of Ogeori Dongsanje, currently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mong those who led the restoration.

As a resto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as unavoidable for Ogeori Dongsanje to be transforme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however, it

still includes enriched traditional symbolic resources, ceremonial acts, and play acts. Consequently, it may serve as a crucial source in producing culture that while being rooted in tradition adds some new elements to make it more suited to the contemporary context.

Key words : Ogeori Dongsanje, Ogeori Dongsan, Dongsanje(Village ritual), Gocha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